

과테말라 선교보고 (제 47 회)

10/11 일, 2017

풍성한 수확

10 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우기철이 막바지에 들어선 기후는 아직 천지를 뒤흔드는 우뢰의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섬광으로 줄기차게 퍼붓는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농부들의 그동안의 땀과 수고로 옥수수과 기타 작물들이 산과 들에서 푸르름과 과일들로 풍성함을 이루고 있어 금년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금년 우기철에도 예외없이 비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대형 사고는 없이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도 변덕스러운 날씨에 빨래를 내 걸었다 금방 걷어들이고 또 내다 걸고 하는 번거로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는 여러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오늘도 현지 사역에 열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주일어나는 지진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자주 큰 지진들이 있어서 깜짝 깜짝 놀라게 하며 가슴을 쓸어 담게 합니다. 지난 9 월에도 2 회에 걸쳐 7.2 진도와 6.3 진도의 지진으로 무척 놀랐으나 선교사의 숙소와 교회에 별 피해가 없었고 현지 교인들도 별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는 자주 겪는 일이라 지진이 와도 별 두려움 없이 대처하지만 최경희 선교사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 지진에 크게 놀라고 당황 해 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괜찮아 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에 별 피해 없이 지날 수 있는 것은 후방에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은혜라 믿고 과테말라를 위해 매일 기도 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2 교회 창립 4 주년 감사 예배 및 교실 공사

10 월 8 일 주일에는 제 2 교회(Esperanza 지역) 창립 4 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 년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예배 처소도 마련해 주셔서 월세로 있던 지역에서 새 성전으로 예배 처소를 옮김으로 교인들의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이제 안정되어 가면서 새 성전 지역에서 성도들도 조금씩 새로 오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지난 3 년 동안 창립감사 예배에 필요한 비용을 제 1 교회와 외부 지원으로 감사예배를 드렸으나 금년에는 100% 자체적으로 행사 경비를 마련하여 전혀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한층 성숙되어진 교회에 감사합니다.

아직 2 층 분당 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우선 급한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실 3 개를 위한 공사가 이번 10 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후에 어린이들이 더 많아지면 현재 짓는 교육관에 2 층을 올려 교실 6 개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과테말라는 어린이 날이 매년 10월 1일입니다. 금년에는 10월 1일이 주일이어서 본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을 진행 했습니다. 어린이날 하루 전 토요일에 교회 어린이들을 이곳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하루를 즐겁게 지냈는데 비가 와서 좀 어려웠으나 그래도 어린이들은 즐거워하며 깔깔거리며 재잘거리고 기뻐했습니다. 주일에는 본 교회 어린이 70여명에게 (제 1 교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장차 교회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는 제 2 교회 어린이들 약 30여명을 교회 가까운 타코벨 에 억수 같은 비 속에 그들이 평소에 잘 갈수 없는 타코벨에서 점심을 먹으며 그렇게 즐거워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고마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각 어린이 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특별 케익도 준비하여 즐거워 했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2 학기 신학교 개강

금년도 제 2 학기 신학교를 지난 9월 초에 개강 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신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중남미에서 85년된 전통 있는 신학교 SETECA 신학교의 분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사 관리는 SETECA 신학교에서 하고 본 교회는 학생들의 학비 및 숙식 문제를 도와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학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회적으로 개인으로 신학생들을 돕고 있는 여러 동역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한 신학생들 돕는 것이 곧 한 교회를 돕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여 선교회 수련회

9월 22일-23일, 제 2 회 여선교회 일박 이일 수련회가 파나하첼(Panajachel)의 호수가에서 일박 이일로 실시하였는데 금년도 작년에 이어 30여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기도와 말씀과 친교, 장기자랑 등 다양한 순서로 참회와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져 가정과 아이들을 떠나 홀가분하게 여성들만 모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뿌듯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 방문

* 지난 8월 25일 - 9월 1일 시카고 지역에 소재한 아가페 교회의 고경희 전도사님께서 선교지 답사차 이곳에 오셔서 여러가지 사역을 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주일에는 2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 전 하시고 화요일 자매들의 기도회에 참석하시어 말씀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과테말라에 오셔서 과테말라 문화를 체험하시며 과테말라의 이모저모를 답사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체류 기간 동안 본 교회에서 초상이 나서 심지어 과테말라 장례식까지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9월 2일- 11일 시카고 지역에 소재한 헬로쉽교회의 창조과학자 이 동용 장로님과 이경미 집사님 부부께서 오셔서 SETECA 신학교에서 신학생 및 교수님들께 3일간 강의 하였고, 두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1시간씩 생방송으로 강의하셨고, 기독교 TV 방송국에서 1시간 강의하셨고. 주일에는 2 개의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 강의하셨고. 한 한인 교회에서 강의하셨습니다. 또한 SETECA 신학교에서는 하루저녁 과테말라 시티의 일반인들을 초청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별로 쉴 사이없이 진행되는 강의에

매우피곤 하셨으나 지치지 않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과 성경을 통하여 강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인 되시는 성악가 이경미 집사님께서서는 이 박사님 강의 바로 직전에 아름다운 스페니쉬 찬양으로 열광하는 수강생들의 마음을 열어 한층 더 강의가 효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의를 들은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라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은 열매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임 선교사를 위한 기도

현지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면서 사역이 늘어남과 현지 선교사는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지치기도하여 과테말라 선교를 계속 이어가실 선교사님을 찾고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에 관심이 있으셔서 선교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쉬임 없이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에서 최상득,경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 2, 제 2 교회 성전 완성을 위하여
- 3, 현지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 4, 후임 선교사가 부임할 수 있도록



처음먹어보는 타코벨



화요 아침 기도회



여 선교회 수련회



여 선교회 수련회



제 2 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